

무안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적극 나서

농가별 전담공무원 지정 소독사항 점검...의심가축 발견 시 신고 당부



무안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나선다.

무안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거점 소독시설 설치·운영하고, 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소독약품, 면역

증강제, 생석회를 지원한다.

또한 양돈농가 집중 차단방역을 위해 공동방제차량 5대를 동원하여 매일 농가 주변을 소독을 실시 중이다.

한편 양돈농가에 매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을 활성화 줄 것과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안군은 전체 사육농가 76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소독사항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는 반드시 근로자가 입·출국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발생이 확인되고, 경기 연천군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가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2019 군민의 상 후보자 모집

영암군은 제44회 영암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영암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0월10일까지 접수한다.

‘영암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군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찾아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영암군민의 상은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분야 등 4개 부문의 후보자들 중 1명을 선정한다.

후보자 추천은 실과소장, 읍면장, 기관·사회단체장, 개인이 추천할 경우 50인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수상자 선정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제44회 영암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마랑미향 찰전어축제’ 개최

아름다운 마랑향에서 물오른 제철 전어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마랑미향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마랑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마랑미향 찰전어축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마랑향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마랑 미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강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홍보하여 지역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축제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마랑면은 축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11종의 참여행사를 마련해 축제를 진행한다.

주요행사로는 개막 축하공연,

마랑미향 노래자랑, 새싹 노래자랑과 어린이 백일장이 열린다. 마을대항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체험, 근·현대 사진전, 우리 집 가훈쓰기, 생선회 깜짝 경매, 깜짝 청자 경매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도 진행된다.

청정 강진만에서 갯 잡아올린 싱싱한 전어를 맛 볼 수 있는 시식행사를 비롯해 30인분 대형 전어비빔밥 만들기, 전어 맨손잡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조달현 마랑면장은 “제11회 마랑미향 찰전어 축제는 제철 맞은 가을 전어와 아름다운 마랑 미향의 풍경이 어우러져 축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진의 매력과 축제의 재미를 즐기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 벼 병해충 긴급방제 나서

벼멸구 ‘확산 경보’...적기 방제 등 홍보 활동 강화

진도군이 벼멸구 등 벼 병해충 긴급 방제에 들어갔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태풍 이후 쓰러진 벼를 중심으로 벼멸구 발생을 확인하고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의 부녀화,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이 있는 곳은 마을별 공동방제를 통해 적기

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군은 현장 방문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타 애벌구 등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담당(061-540-6116)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멸구 등 벼 병해충은 긴급방제 기간 내 방제 작업을 당부한다”며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벼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장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수확철 주말 연장 운영

장흥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말(토요일)에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78기종 195대의 농업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810건의 임대실적을 올리고 있다.

농번기에는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주말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최소 작업 1일전에 예약(061-863-9088)을 마쳐야 기계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농업인은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농업기계를 빌릴 수 있다.

읍·면 농협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과 농지원부,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사업소에 방문하면 회원가입

을 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예약할 수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 농업기계는 자주 사용하는 기계가 아닌 만큼 조작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사고 발생 요인이 매우 높다”며, “출고 전 안전사용 교육장에서 실습을 통한 조작법을 익힌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군, 한방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운영

완도군에서는 하반기 한방꽃차 소믈리에(3급) 자격증반 교육을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방꽃차 소믈리에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매주 화요일 3시간 씩 총 12회에 걸쳐 법제화(뒤음 기술) 실습을 진행한다.

꽃차 소재는 식약처에 식용 가능 품목으로 등록된 화종을 개화 시기에 맞춰 활용하고, 완도군에

자생하는 들국화와 구절초, 가을쑥꽃 등과 한방차로 이용되는 잎이나 뿌리도 곁들여 실습할 계획이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김준열)은 “우리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꽃차 시음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꽃차 가공 및 꽃음료 원물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꽃차산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신안군, 앵퍼터 스쿨 전시회 개최

신안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군청 1층 로비에서 ‘앵퍼터 스쿨(애프터 스쿨 + 앵무새 합성어)’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동물과 함께하는 아트테라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린 40여 점의 그림 작품과 파충류 전갈 등을 키우기 위해 생태계 환경을 재현한 비비리움 작품 10점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동물과 함께하는 아트 테라피’ 수업은 희귀동물을 접하기 어려운 관내 초등학교(압해초·압해동초·안좌초·자은초)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교시 동물매개교육, 2교시 아트테라피 수업으로 6회차 진행되었다.

신안문화원에서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동물매개교육의 선두 업체로 평가 받고 있는 스피스(SPIX, 대표 이찬술)와 아동미술교육 전문가 강지수(전남 청년 내일로 신안문화원 인턴) 등이 참여하였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